



The Effects of Concerns on Food Safety and Trust in Label Information on Label Use and Willingness to Pay among Korean Consumers

Hyun Jung Yoo⁺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dult section of the 2015 survey data on food consumption patterns colle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n=5,121).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was an average level of knowledge on food label overall in the sample, it is found that the group with a higher willingness to pay were more likely to use label information than the group with a lower willingness to pay. Secondly, trust in label informa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affecting consumers' use of label information and willingness to pay. Finally,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food policie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ir actions to check labels and willingness to pay, which indicates that those who are happy with the government's food-related policies tend to make no extra efforts for their food purchase decision such as checking label and paying for additional charge.

Key words: food safety, label information, willingness to pay, action to check label, consumer trust

1. 서론

소비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정보이다.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소비자 정보화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소비생활의 질적 차이를 야기한다(Kim, 2000). 정보격차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차이, 세대간 기술수용차이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현대사회의 중요한 소비자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GMO나 방사선조사식품

의 안전성 논란, 물티슈 독성물질 검출사건 등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필수재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필수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구매하는 제품이면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므로 필수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식품은 매일 섭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품목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공학이 발달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동반하여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

⁺ Corresponding author: Hyun Jung Yoo, Tel. +82-43-261-2728, e-mail, yoohj@chungbuk.ac.kr

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정보제공 웹사이트운영, 안전행동 지침 전달, 인증제도, 표시제도, 소비자안전교육 등 다양한 소비자안전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안전정보의 제공방식을 살펴보면 다분히 공급자 중심적이어서(Song & Yoo, 2014) 정보화 수준이 낮은 소비자는 안전정보에 노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로서,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이를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소비자가 점포 내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는 평균 2초의 시간이 걸리며(Clement, 2007), 소비자는 관성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과 같은 필수재는 소비자의 정보탐색 의도와는 별개로 안전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조성하여 구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정보제공 방법이 '표시'이다.

표시정보는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소비자정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심리적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소시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를 줄이고 구매 후 만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Kim, *et. al.*, 2012),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표시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즉, 식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시점에 표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구매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할 때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표시정보 확인행동 수준이 곧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목표달성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식재료와 위험제거를 위한 노력,

안전검사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는 식품가격에 반영이 된다. 따라서 식품의 가격은 품질을 예상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의 기능을 가지며, 이때 안전은 품질의 중요한 속성이 된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구매하고, 수입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국내산 식품을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행동 속에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해 준다. 실제로 학교급식 재료를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한다'에 68.4%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지불의사 역시 73.7%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월평균 12,826원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Lee & Heo, 2005). 벤조피렌 함유 우동스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했던 소비자의식조사(Yoo, 2013)에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0%정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해 표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안전추구행동을 하는데,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 등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다. 표시정보와 표시확인행동, 비용지불의사는 안전한 식품소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는 많이 연구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소비자의 불안감과 표시정보신뢰, 표시정보만족 등 표시정보관련 사항, 표시확인행동, 비용지불의사의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관련 요인의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전반적인 식품소비에 대한 불안정성을 유추해보고, 표시정보신뢰와 표시정보만족도, 표시확인행동 등을 표시정보

관련 사항을 알아봄으로써 소비자들의 표시정보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비용지불의사의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의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 요인의 영향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표시정보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바람직한 식품소비환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자의 불안감

소비자가 위협이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정의 되는데 여기서 불안감이란 소비자가 재화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Taylor, 1974; Bauer, 1960).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을 연구한 Yoo, *et. al.*(2014)은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하였으며, Yoo & Joo(2014)의 식품안전체감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식품별 불안도를 식품 종류별 소비자의 불안감과 식품위해군에 따른 소비자의 우려수준으로 식품위해우려도를 측정할 바 있다. 그 외에 Nam & Kim(2006), Jin(2009), Lee & Kim(2009) 등이 연구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인식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식품불안감을 식품종류와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우려도로 측정하였다. 즉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식품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은 식품종류와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으로써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특정 행위로 인해 위협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 행위를 회피하거나 조심스럽게 수행하려고 하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Janis, 1967), 보호동기이론(Roger, 1975)이나 인지적-기능적 모델(Navi, 2003), 확장된 병행과정이론(Witte, 1992)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감정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표시정보와 소비자행동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와 이론들에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Lee(1993)는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1996) 역시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자료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소비자의 정보가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즉석식품에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이나 안전성이 우수한 식품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표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표시정보를 활용한다. 특히나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정보탐색비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이다.

표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소비자의 정보 활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McCluskey & Loureiro(2003)는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요구가 복잡해지면서 식품표시(Labeling)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Lancaster(1966)는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통하여 식품의 속성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뢰는 소비자의 기대이익을 높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Park, 1999), Yoo,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표시정보신뢰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재료확인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표시정보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가 적발되고 있어(Daejonilbo 2015.12.03; Medical Today, 2015. 11.28 등)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므로(Yoo & Joo, 2012) 식품 표시정보와 표시정보신뢰는 식품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 영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식품표시정보신뢰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소비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시정보신뢰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표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표시정보는 정부의 식품정책의 일환이므로 표시정보신뢰와 표시만족도는 소비자의 식품정책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비용지불의사

소비자들의 위험회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수용가능한 위험과 비용지불의사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이중 비용지불의사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해요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Conn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유전자변형식품, 바이오그형물, 방사능오염식품을 피하기 위하여 유기농 표시가 된 식품을 구매할 경우에 추가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급식 재료를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 한다'에 68.4%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불의사 역시 73.7%의 학부모들이 찬성하고, 월평균 12,826원의 가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Lee & Heo, 2005). 또한 보다 안전한 라면을 구입하고 섭취하기 위해 생산단가가 올라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면 얼마까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Yoo(2013)에 의하면 1000원의 라면에 대해 27.6%의 비용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위해요소를 회피하고 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한 의지가 강할수록 식품안전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지 않고 단순히 비싼 식품을 구매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므로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비용지불의사에 대해서는 기업과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이 모두 그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농경연의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식품구매행태, 식품선호변화,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식품공급자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품수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식품소비행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2013년부터 매년 5월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식품주구매자, 성인,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 자료 중 성인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변수와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 전체 측정변수 중 식품안전성, 식품안전체감도, 식품우려도, 표시신뢰도, 표시만족도, 식품정책만족도, 표시확인행동, 비용지불의사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소비자불안감의 변수로 활용된 수입산 식품의 우려도와 국내산 식품 우려도, 조리 및 장소 우려도, 위해요인 우려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수들의 신뢰도가 기준치(0.7)를 초과하여 척도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 문항은 단일문항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신뢰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응답결과가 모르겠다(0)로 측정된 경우는 평균값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분석에 제외시켰다.

Table 1. Scale and Cronbach's alpha of consumer anxiety variables

division	scale	n. of scales	Cronbach' a
anxiety of imported food	① cereal ② vegetable ③ fruit ④ meat(4 countries) ⑤ fishery(3 countries) ⑥ processed food ⑦ forest products	12	.908
anxiety of domestic food	① cereal ② vegetable ③ fruit ④ meat(4 countries) ⑤ fishery(3 countries) ⑥ processed food ⑦ forest products	7	.884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① office/school ② restaurant ③ home ④ fast cooking area ⑤ delivery/take-out	5	.751
anxiety of hazard factors	① contaminants ② pesticide residue ③ antibiotic ④ Toxic nature ⑤ food additive ⑥ heavy metal /endocrine disruptor ⑦ food poisoning bacteria ⑧ animal disease ⑨ GMO ⑩ irradiated food ⑪ container/package hazard ⑫ contactant	12	.946
-food safety,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reliability of labelling, -satisfaction of labelling, -label checking behavior,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willingness to pay costs		single scale	-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 및 표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식품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의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식품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은 표시에 대한 만족도를 올려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식품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후 식품만족도는 비용지불의사 및 표시확인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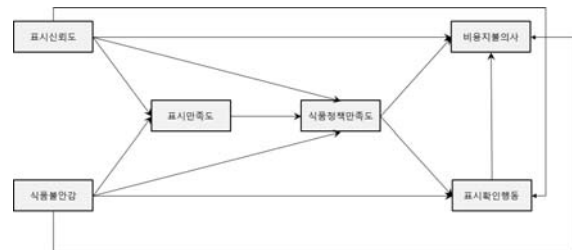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43.1%, 여성이 56.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24.3%로 가장 많았다. 단 전업 주부 또는 미취업자가 전체의 25.6%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전체의 18.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는 하는 응답자가 30.6%, 하지 않는 응답자가 69.4%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Overview of subjects

(N=5,121)

characteristics		frequency	%
total		5,121	100.0
gender	male	2207	43.1
	female	2914	56.9
monthly income	1,000,000 under	834	16.3
	1,000,000~2,000,000 under	1249	24.3
	2,000,000~3,000,000 under	832	16.2
	3,000,000~4,000,000 under	467	9.1
	4,000,000~4,500,000 under	214	4.2
	5,000,000 more than	137	2.7
	housewife or inoccupation etc.	1313 75	25.6 1.5
job	housewife	2374	46.4
	specialist/manager/white color	617	12.1
	sales/service	942	18.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480	9.4
	Craft, machine operators	234	4.8
	inoccupation/	165	9.1
regular exercise	Yes	1568	30.6
	No	3553	69.4

IV. 연구결과

1.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인식

식품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인식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Table 3〉 참조). 분석에 앞서 각 응답자별 식품불안감을 구성하는 수입산 우려도와 국내산 우려도, 조리 및 장소 우려도, 위해요인 우려도의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우려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를 5점으로 하여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2단계로는 수입산 식품 우려도의 경우 육류와 수산물을 구성하는 문항이 각각 4개 문항과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육류와 수산물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3단계로는 각 우려도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의 평균을 변수계산으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식품안전성은 3.3점 수준으로 보통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식품불안감에서는 위해요인 우려도가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입산에 대한 우려도가 3.4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식품 우려도는 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는 3.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시인지도는 1.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시만족도(3.0)와 표시신뢰도(3.3), 표시확인행동(3.3) 모두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 개방으로 시장에서 수입식품을 흔히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들은 과거 수입식품 잔류농약 사건, 기생충알 및 납 검출 사건 등 수입식품과 관련된 많은 식품안전사건사고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련 변수중 수입산 식품 우려도와 국내산 식품의 우려도를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Table 4〉 참조). 분석 결과 모든 식품 종류에

Table 3. Consumer awareness of food safety and labeling

division	scale	mean	S.D.	division	scale	mean	S.D.
food safety	5	3.306	0.710	willingness to pay costs	5	3.253	0.581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100	67.761	14.556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100	65.58	14.209
anxiety of imported food	5	3.408	0.522	awareness of labelling	5	1.936	0.508
anxiety of domestic food	5	2.230	0.480	satisfaction of labelling	5	3.005	0.720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5	2.718	0.489	reliability of labelling	5	3.293	1.289
anxiety of hazard factors	5	3.847	0.707	label checking behavior	5	3.308	0.720

Table 4. Differences of consumer anxiety between imported food and domestic food

division		N	mean	S.D.	t-value
cereal	imported	5121	3,258	0,668	109,677***
	domestic	5121	2,109	0,570	
vegetable	imported	5121	3,345	0,702	106,373***
	domestic	5121	2,154	0,599	
fruit	imported	5121	3,191	0,731	97,327***
	domestic	5121	2,125	0,599	
meat	imported	5121	3,408	0,610	109,641***
	domestic	5121	2,235	0,637	
fishery	imported	5121	3,937	0,603	132,428***
	domestic	5121	2,364	0,668	
processed food	imported	5121	3,463	0,713	81,907***
	domestic	5121	2,476	0,694	
Forest Products	imported	5121	3,254	0,719	99,664***
	domestic	5121	2,145	0,601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도가 국내식품에 대한 우려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식품안전 및 표시 인식의 차이

소비자의 비용지불의사 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K-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집단은 평

균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전체의 41%,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이 전체의 59%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 수준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전 및 표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그 결과 식품안전성과 식품체감도, 수입산 우려도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식품우려도와 조리

Table 5. Differences of food safety and labeling awareness according to willingness to pay cost

구분	group	N	mean	S. D.	t-value
willingness to pay costs	low	3021	2,795	0,457	-132,089***
	high	2100	4,044	0,206	
food safety	low	3021	3,309	0,696	.317
	high	2100	3,302	0,731	
sensory level of food safety	low	3021	68,096	13,799	1,936
	high	2100	67,279	15,571	
anxiety of imported food	low	3021	3,398	0,504	-1,590
	high	2100	3,422	0,545	
anxiety of domestic food	low	3021	2,246	0,474	2,952**
	high	2100	2,206	0,488	
anxiety of cooking and place	low	3021	2,739	0,487	3,785***
	high	2100	2,687	0,491	
anxiety of hazard factors	low	3021	3,822	0,704	-2,967**
	high	2100	3,882	0,710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low	3021	66,235	13,479	3,904***
	high	2100	64,628	15,151	
awareness of labelling	low	3021	1,838	0,491	-17,040***
	high	2100	2,077	0,497	
satisfaction of labelling	low	3021	3,259	0,553	-4,979***
	high	2100	3,343	0,617	
reliability of labelling	low	3021	3,208	0,573	-6,232***
	high	2100	3,318	0,647	
label checking behavior	low	3021	2,848	1,284	-10,626***
	high	2100	3,231	1,262	

* < .05, ** < .01, ***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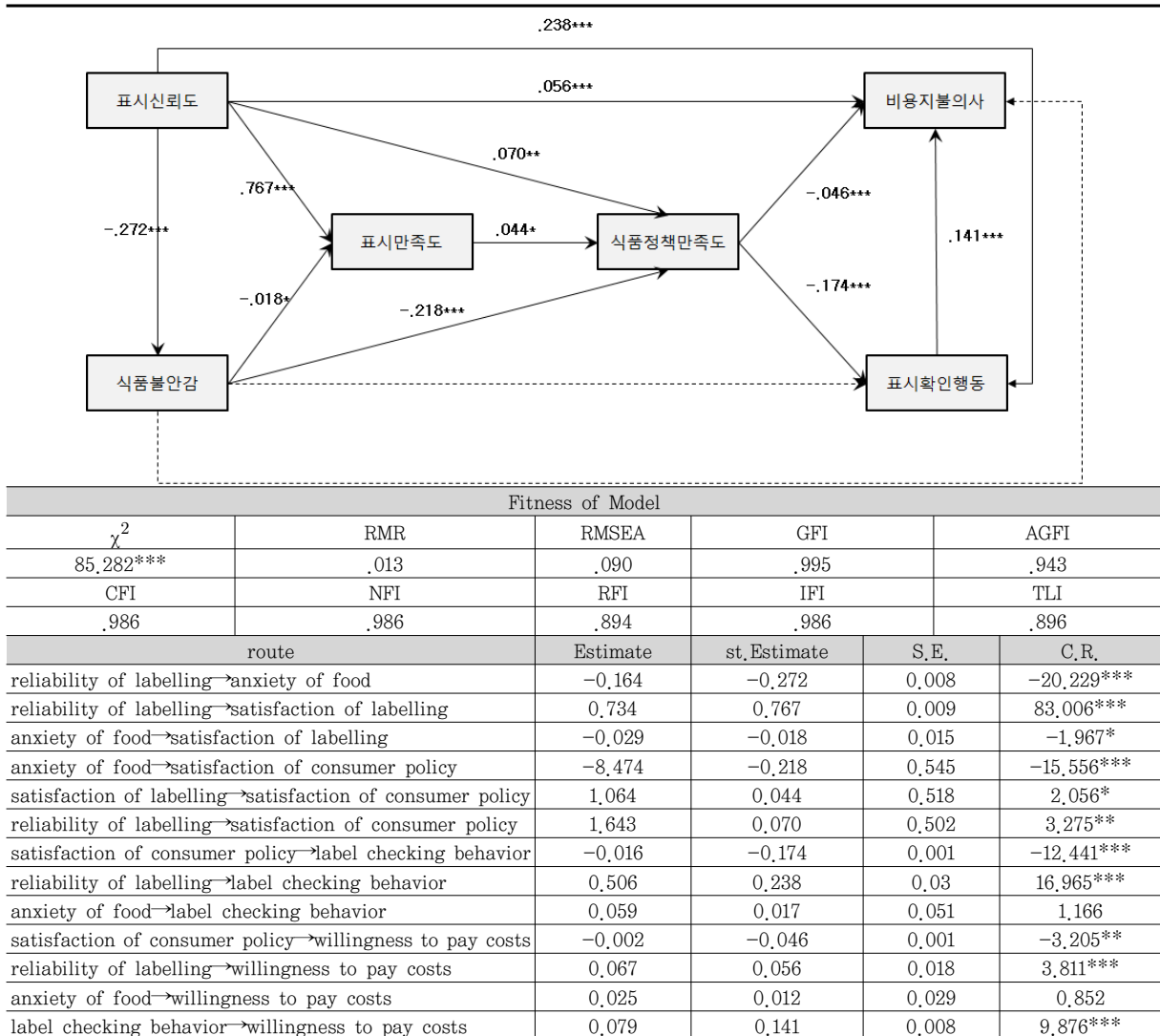
및 장소 우려도, 식품정책만족도는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이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위해요인 우려도와 표시인지도, 표시신뢰도, 표시만족도, 표시확인행동은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이 국내산 식품과 조리 및 장소 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은 위해요인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을 비교해 본다면, 비용지불의사가 낮은 집단은 식품 자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해 사용하는 자신의 소비환경에 대한 우려까지를 함께 하고 있는 반면,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은 그런 사

적인 부분에서의 우려는 낮고 단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해서만 높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은 위협회피를 위해 경제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위협회피에 효과적인 정책인 각종 표시에 대한 관여도와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Table 6. Path analysis result



* < .05, ** < .01, *** < .001

Table 7. Effect of label checking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y costs according to antecedents

division	label checking behavior			willingness to pay costs		
	Direct	Indirect	Total	Direct	Indirect	Total
reliability of labelling	0.238	-0.033	0.206	0.056	0.018	0.074
anxiety of food	0.017	0.038	0.055	0.012	0.018	0.03
satisfaction of labelling	-	-0.008	-0.008	-	-0.003	-0.003
satisfaction of consumer policy	-0.174	-	-0.174	-0.046	-0.025	-0.071
label checking behavior	-	-	-	0.141	-	0.141

실시하였다(〈Table 6〉 참조). 분석결과 χ^2 값이 85.28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지수가 기준치에 적합하게 나타나 모형이 받아들여 질만하다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의 각 경로의 영향성을 살펴본 결과 식품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시신뢰도는 식품불안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시만족도와 식품정책만족도, 비용지불의사, 표시확인행동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우려도는 표시만족도와 식품정책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시만족도는 식품정책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정책만족도는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표시확인행동은 비용지불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표시확인행동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는 표시신뢰도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만족도는 표시신뢰도 다음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며 부적이 효과를 나타냈다. 가격지불의사는 표시확인행동이 가장 큰 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세계무역개방,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환경오염 문제 등 내외적인 식품위해요소들로 인하여 식품소비

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의 경우 정보탐색에 큰 비용을 들이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식품 구매 즉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표시정보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과 표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알아보고, 표시 신뢰와 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표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적으로 비용지불의사 수준별 표시확인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표시확인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표시정보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소비자의 식품표시확인행동과 가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표시신뢰도가 소비자의 안전행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다. 즉 표시신뢰도가 높을수록 식품불안감은 낮아지며, 표시만족도와 식품정책만족도는 모두 높아진다. 또한 표시확인행동 수준 역시 높아지며 비용지불의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울러 표시확인행동이 비용지불의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표시신뢰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안전행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을 알 수 있다.

식품정책만족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식품정책만족도가 높을수록 표시확인행동

과 비용지불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써 나타나 소비자 들은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시장에 대한 정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에 표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적 비용은 비용지불의사로 나타나며, 비경제적 비용은 표시확인행동과 같은 안전추구행동이라 볼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비용은 안심할 수 없는 식품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식품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더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려 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는데, 객관적 품질과 가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품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것을 구매한 경우가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구매한 경우보다 약 26.46%의 화폐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의 품질과 가격간에 상관관계가 제품마다 매우 상이하다 (Yoo, *et. al.*, 2008). 따라서 비용지불의사에는 소비자들이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 추구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점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지불의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Kim, Kee Ok. 2000. An Analysis of Consumer Information Gap: Another Consumer Problem in an Informatio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0): 97-115.
- Kim, K., S. H. Jung, K. O. Huh and H. S. Kim. 2012. *Market Economy and Consumer*. Seoul: Kyomunsa.
- Kim, Yong Ja. 1996. A Study of Consumer Information Supply System. *Consumer Issues Research*. 18: 1-35.
- Nam, Hee Jung and Young Soon Kim. 2006. A Survey on Perceived Food Safety in Urban Residents. *The Korean Journal of Food and Nutrition*. 19(2): 126-142.
- Park, Tong Hee. 1999. A Critical Analysis of Trust Conceptualization for Reconstruc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3(2): 1-18.
- Song, Eugene and Hyun Jung Yoo.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On-line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4): 71-95.
- Yoo, Hyun Jung. 2013. Consumers' Responses to the Communication Process of Food Hazard Information: Focusing on the Benzopyrene Inciden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9(1): 91-112.
- Yoo, Hyun Jung, Eu Gene Song and A Reum Oh. 2008. Price-objective Quality Correlations in the Korean Market through the Product Test Information Analysis. *Consumption Culture Research*. 11(1): 95-120.
- Yoo, H. J. and S. H. Joo. 2012. Development of Consumers' Perceived Food Safety and Food Safety Competency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3(4): 79-104.
- Yoo, H. J. and S. H. Joo. 2012.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n Consumers' Perceived Food Safety and Food Safety Orientation Behavior.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8(4): 49-70.
- Yoo, H. J., S. H. Joo and Eugene Song. 2014. The Effect of Trust in Label Information and Negative Emotion to Consumers' Safety Seeking Behavior-Focused on Food Consumption. *2014's Annual Conference of KSCS Proceedings*.
- Lee, E. H. 1993. A Study on Consumer Information Need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 Lee, Jeung Yun and Kyu Dong Kim. 200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and Concern for Food Safety among Urban Housewives. *Korean Journal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16(6): 999-1007.
- Lee, Ji Eun and Seong Wook Heo. 2005. An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and Additional Cost Scale of Environmental-

- friendly Agri-product School Meal Program.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3(2): 145-159.
- Jin, D. I. 2009. A Study on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 on Food Risk.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Graduation School, Master's Thesis.
- Clement, J. 2007. Visual Influence on In-store Buying Decisions: An Eye-track Experiment on the Visual Influence of Packaging Design. *J. Market Manage.* 23(9): 917-928.
- Conner, D. S. 2002. *The Organic Label and Sustainable Agriculture: Consumer Preferences and Values*. Cornell University.
- Janis, I. L. 1967. Effect of Fear Arousal on Attitude Change.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Experimental Research*. 3: 166-225.
- Lancaster, K. 1966.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4(2): 132-157
- McCluskey, J. J. and M. I. Loureiro. 2003. Consumer Preference and WTP for Food Labeling: A Discussion of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34(3): 95-102.
- Roger, R. W. 1975. A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of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sychology*. 91: 93-114.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 329-249.
- Daejonilbo. Six Establishments Where Food Hygiene Violations Uncovered.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95712 (2015.12.3).
- Medical Today. Gyeonggi-do. Origin Disguised. Gimjangcheol Junk Food Caught 25 Places.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62000> (2015.11.28).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기옥. 2000. 소비자의 정보격차 분석: 정보사회가 가져올 또 하나의 소비자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10): 97-115.
- 김기옥, 정순희, 허경옥, 김혜선. 2012. 시장경제와 소비자. 서울: 교문사.
- 김용자. 1996. 소비자정보제공 체계에 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18: 1-35.
- 남희정, 김영순. 2006. 일부수도권 거주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9(2): 126-142.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8.
- 송유진, 유현정. 2014. 온라인을 통한 식품안전정보제공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4): 71-95.
- 유현정. 2013. 식품위해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따른 소비자반응. *한국위기관리논집*. 9(1): 91-112.
- 유현정, 송유진, 오아름. 2008. 객관적 품질과 가격의 상관관: 1996년~2006년 소비자시대 상품테스트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1(1): 95-120.
- 유현정, 주소현. 2012. 소비자의 식품안전 체감 및 역량척도 개발연구. *소비자학 연구*. 23(4): 79-104.
- 유현정, 주소현. 2012.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체감도가 식품 안전지향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모형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4): 49-70.
- 유현정, 주소현, 송유진. 2014. 표시정보신뢰와 부정적 감정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식품 소비를 중심으로. 2014 소비자분야 통합학술대회.
- 이은희. 1993. 소비자정보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윤, 김규동. 2009. 대도시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6(6): 999-1007.
- 이지은, 허승욱. 2005.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추가 비용규모 추정. *한국유기농학회지*. 13(2): 145-159.
- 진대일. 2009. 식품 위해에 관한 예비 교사들의 인식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표시정보신뢰가 표시확인행동 및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식품 안전과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 인식수준을 알아보고, 표시신뢰와 불안감이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의 2015년 식품소비행태 조사자료 중 성인편 자료(n=5,121)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표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었고,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에는 비용지불의사가 높은 집단이 표시정보 활용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시신뢰도와 식품불안감이 소비자의 식품표시확인행동과 가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표시신뢰도가 소비자의 안전행동을 발현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식품정책만족도는 소비자의 표시확인행동과 비용지불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식품시장에 대한 정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들은 표시확인행동이나 비용지불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주제어 : 식품안전, 표시정보, 비용지불의사, 표시확인행동, 소비자신뢰

Profiles **Hyun Jung Yoo** : She received her M.A., and Ph.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onsumer Scienc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nsumer behavior, consumption trend, consumer safety, consumer education and policy. She has published 119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10 co-author books (yoohj@hcbnu.ac.kr).